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홍상황(洪尙煌)**

이경연(李庚妍)***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고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361명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공격성은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몇 가지 모형을 비교한 결과,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각각 매개작용을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귀인과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아동 자신이 가진 거부민감성과 같은 심리적, 인지적 변인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괴롭힘 피해, 공격성,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제1저자,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진주교육대학교 석사 졸업

I. 서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발달한다. 생의 초기에는 주로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학교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교사, 또래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되어 간다. 특히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배우고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며(Hartup, 1983),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 발달하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사회적 유능감이 발달한다(Piaget, 1962: 김귀연, 김경연, 2005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또래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저해한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또래관계 문제는 또래괴롭힘으로, 또래괴롭힘의 전반적인 피해경험율은 평균적으로 40%를 웃돌고 있으며(박경아, 2002; 이상균, 1999), 이로 인해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자들의 정서와 행동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예성, 김광혁, 2005). 또래괴롭힘이란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작은 집단 혹은 전체 학급의 공격에 체계적으로 노출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bullying)으로 정의할 수 있다(Olweus, 1993). 이는 공격적 행동이거나 의도적인 가해행위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힘의 불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개인 간의 관계이다(Olweus, 1993). 또래괴롭힘은 언어적, 신체적 공격과 같은 대면 상호작용 형태인 직접적 괴롭힘과 소문을 퍼뜨리거나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따돌리는 등의 관계적 괴롭힘(간접적 괴롭힘)을 포함한다.

또래괴롭힘은 공격행동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이므로 초등학교 때 시작된 또래괴롭힘의 패턴은 청소년기 전반에서 유지되기 쉽다(이해경, 김혜원, 2001).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율은 초등학생이 26.7%로, 중학생의 10.3%에 비해 더 높고(이춘재, 광금주, 2000), 또래괴롭힘을 장기간 경험한 학생보다는 단기간 경험한 학생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Hunter & Boylr, 2002). 따라서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정서로 우울, 분노, 보복심,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고하고 있고(이아영, 2011), Barchia와 Bussey(2010)는 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이 고통의 신호로서 우울을 나타내며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 소외감, 외로움, 높은 불안과 우울증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Boulton, & Smith, 1994; Olweus, 1984; Olweus, 1993; Perry, Williard, & Perry, 1990: 최지윤, 2009에서 재인용). 또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유발되는 심리적 부적응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강한 관련성을 갖는 부정적 정서는 우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awker & Boulton, 2000).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우울, 위축 및 외

로움 등의 내재화 문제들과 또래괴롭힘 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증재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이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는데 또래로부터 거부된 청소년이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로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하였고(Coie, Terry, Lenox & Lochman, 1995), 타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하였다(Crapanzano, Frick, Childs, Terranova, 2011; Lösel & Bender, 2011; Rueger, Malecki, Demaray, 2011).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에게 유발되는 공격성은 보복차원에서 자신을 가해한 사람을 일차적 대상으로 삼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사소한 일을 계기로 다른 대상자에게 표출 될 수 있다고 하였다(Marcus- Newhall et al., 2000; Pederson, Gonzales, & Miller, 2000). 뿐만 아니라 이지현(2006)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가해행동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보고하였고 김예성과 김광혁(2005)은 종단연구 결과 4학년 때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6학년 때의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강진령, 유형근, 2000; 김태웅, 2003; Ma, 2001) 또래괴롭힘의 피해와 가해 경험이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피해와 가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지현, 2006).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으로 인해 공격성이 증대되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이 또 다른 또래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제를 통해 공격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순수하게 또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해하는 집단보다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공격성을 띄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집단의 상대적 분포가 높으며 이 집단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피해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유진, 2006).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인들이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격성은 접근법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공격성을 관찰 가능한 특성과 행동만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포함시켜 정의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공격성을 다른 유기체에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반응(Buss, 1961),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위(Feshbach, 1983)라고 정의하고 행동의 결과만을 고려한다. 두 번째는 공격성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Aronson, 1980),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손상을 주거나 재산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Hartup, 1974)이라고 정의한다. 의도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우발적 사고로 인한 상해도 공격행동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공격 의도를 가진 행동이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공격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허은순, 2003). 따라서 공격성의 정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 동기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정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곽금주, 1992; 김명숙, 1989; 윤완기, 1994).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공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언어적 행동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고 및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학생이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따라 또래부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공격성 발달단계적은 유의한 개인차를 나타내는데(고광만, 2012),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 심리적 요인이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귀연, 김정연, 2005). 최근 몇몇 연구에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중재하는 개인내적 특성이나(김태웅, 2003; 조유진, 2006) 인지적 요인을 밝히고 있고(최옥임, 2001; Dodge & Frame, 1982), 선행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또래는 차갑고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 또래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래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공격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였다(Erdley & Asher, 1996). 또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어진 상황에서 더 적은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규정하는 단계에서 타인이 적대적인 동기를 가진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Slaby & Guerra, 1988).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인지, 심리적 변인이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 모델이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내적 과정에 관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정보가 균형있게 처리되어 단서가 적절히 해석되면 아동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지만 정보처리 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처리방식이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일탈된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김은경, 2011). 따라서 공격적 반응과 같은 부적절한 반응은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지각적 편파나 오류로 인한 것이며(김은경, 이정숙, 2009), 실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왜곡된 사회정보처리방식이 공격적 행동 양식에 선행하였으며 이러한 왜곡을 적절한 방식으로 변화시켜줌으로써 아동의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Dodge, Bates & Pettit, 1990; Guerra, & Slaby, 1990; Hudley & Graham, 1993). 즉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생에 사회정보 처리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침을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부호화, 해석, 반응탐색, 반응결정의 네 단계로 나누는데, 사회정보처리의 각 단계는 앞 단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정보처리의 앞 단계인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자극선별과 상황판단이 반응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호화와 해석단계에 초점을 두어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부호화와 해석단계에서의 인지, 심리적 특성이 매개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호화란 다양한 자극과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단서를 찾아 적절하게 부호화 하는 것(encoding social cues)으로(김은경, 이정숙, 2009), 단서를 부호화하는 것은

단서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Crick & Dodge, 1994; Dodge, 1986).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의도가 불분명한 또래에 의해 자극이 된 상황에서 부호화에서의 결핍(경감 단서를 부호화 하는데 실패)과 편향(적대적 단서에 선택적 주의)이 아동을 공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Pettit et al., 2001; 김영은, 2012에서 재인용). 정보처리 모델의 다음 단계인 해석단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받아들인 단서를 바탕으로 상대의 동기나 의도를 판단함으로써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Dodge, 1986). 선행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편파가 몇 년간의 공격적 행동을 예언한다고 하였으며(Dodge, Pettit, Bates, & Valente, 1995) 또래의 행동을 악의적이고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태도는 공격성과 관련을 갖는다고 하였다(김은경, 이정숙, 2009; 김지현, 박경자, 2006; 윤리라, 1999; 한준아, 2001; Crick & Dodge, 1996). 또한 김은경과 이정숙(2009)은 아동의 학대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편파나 오류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래괴롭힘은 학대와 같이 거부당한 경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부호화와 해석의 문제가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부호화 단계의 편파, 오류와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는 거부민감성을 들 수 있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의미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부에 대해 불안해하고 거부를 더 잘 지각하며 과잉 반응하는 성격적 또는 인지 정서적 성향을 의미한다(Downey & Feldman, 1996).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수용 받는 경험 뿐 아니라 거부와 같은 부정적 경험 또한 하게 된다. 그런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의 경험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거나 또는 이와 상반되는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된다.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학대나 또래의 무시, 따돌림과 같은 거부의 경험으로부터 형성, 발달되며(Crick & Grotpeter, 1995), 또래거부는 거부민감성의 불안과 분노 거부기대를 증가시키고 또래관계에서 수용되고 호감을 받게 되면 불안 거부기대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거부의 경험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형성된 아동은 타인에게 지지나 수용을 구해야 할 경우 자신이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발달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 각성과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부를 피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따라서 사소하거나 모호한 거부단서에 대해 선택적 주의집중을 하게 되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분노나 적대적 정서를 잘 인식하게 되어 지나치게 경계하게 된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위협을 찾아내는 역치가 더 낮고(Olsson, Carmona, Downey, Bolger, & Ochsner, 2008), 거부관련 단서에 대해 더 경계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Berenson et al., 2009). 즉 또래괴롭힘과 같은 거부를 경험한 아동은 거부민감성이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부단서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집중하고 과민하게 되는 지각적 편파

를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지 않은 아동이 사회적 자극을 정확하고 균형있게 부호화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과 달리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적대적 단서나 거부적 단서에 주의 집중함으로써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학대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 적대적인 편향이 아동을 공격적으로 만든다고 하였고 종단연구에서는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교사가 평정한 또래에 대한 공격성, 사회적 유능성의 감소를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ow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또한 계속되는 거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타인에게서 거절 받는 것을 예상한 사람들은 수용받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 비해 관계에서 보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거부민감성이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적대적 편향과 같은 부호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특히 또래괴롭힘과 같이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거부당한 경험은 또래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고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또래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킨다고 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 모델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수용과 거부 기대가 학습되며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상황 특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Levy, Ayduk, & Downey, 2001; Romero-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이는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거부민감성이 작용하여 위축되거나 공격적일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또래 거부민감성을 또래괴롭힘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다음 단계인 해석단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다(김은경, 이정숙, 2009). 즉 또래의 행동에 대한 의도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부호화 단계에서 받아들인 단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동기나 의도를 추론하게 된다.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이 공격성을 나타내는 데는 또래와의 부정적 관계 경험에서 또래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데는 상황이나 자극 자체보다는 내면의 인지적 평가과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상대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귀인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erkowitz, 1974; Dodge, Murphy, & Buchsbaum, 1984). 선행연구에 의하면 오랫동안 공격자의 희생양이 되어온 남자는 상대방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며(Schwartz, Mcfadyen-Ketchen, Dodge, Pettit, & Bates, 1998), 학대받은 아동은 상대방의 행동

을 적대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Crick & Dodge, 1996; Dodge et al., 1995). 이에 대해 김은경과 이정숙(2009)은 학대하는 가정에서는 애매함을 가장한 고의가, 실수를 가장한 폭력이 자주 나타나므로 가정 내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석할 충분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또래로부터의 학대 경험이라고 볼 때,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은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해석단계에서 또래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문제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적대적 귀인이란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거나 보복행동을 하게 된다. 귀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공격행동에 있어 아동의 개인차가 상대의 의도에 대한 귀인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적대적 귀인을 하는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Dodge, Price, Bachorowski, Newman, 1990). 또한 이지현(2006)은 여자아동의 피해 경험과 가해 행동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판단하고 복수하려는 의도를 지니는 것과 관련된 적대적 인지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 귀인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을 또래괴롭힘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또래괴롭힘과 같은 지속적인 거부의 경험으로 인해 또래 거부민감성이 형성,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부나 분노 단서에 집중함으로써 적절한 부호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인 해석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보이게 되어 공격성을 나타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또래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아동의 정보처리 패턴을 왜곡시키고 이로 인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 피해와 정보처리 과정 및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같은 부정적 사회적 경험 때문에 정보처리의 각 단계에서 편파나 오류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와 공격성을 가진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부호화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사회적 단서를 이용하지 않고 사회적 상황에 지나치게 빨리 반응하거나 때로는 적대적 단서에 초점을 맞추고(곽금주, 1998), 다른 사람의 의도를 더 적대적으로 해석하며(Graham & Hudley, 1994) 아동들에게 또래 거부를 당한다(Coie & Dodge, 1998; Coie, Dodge, & Coppotelli, 1982)는 두 방향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는 한 번 형성된 공격성은 주위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같은 부정적 사회 경험 때문에 정보처리 과정에서 편파나 오류를 보이게 되어 공격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공격성은 또 다시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배척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공격적인 아동의 또래에 대한 적의적 해석을 강화하고, 적대적 단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서현아, 지은주, 2000). 정보처리 과정은 일종의 도식, 패턴이므로 일단 형성된 공격적인 아동의

왜곡된 정보처리 패턴은 주위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 강화되고 이로 인해 공격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정보처리로 인한 공격성의 순환고리를 끊고, 순환고리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공격성을 유발하는 초기 경험 및 그로 인한 정보처리 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사회 경험으로 또래괴롭힘 피해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을 설정하여 그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위축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달리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바탕으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의 정보처리 과정 및 이로 인한 또래 거부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유지, 강화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와는 상반되게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경험 및 공격성을 유발하는 정보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인지, 정서적 개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였던 거부민감성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거부민감성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아동의 거부민감성에 관한 인과관계나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4개의 검사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이중으로 응답하거나 누락문항 수가 각 검사별로 5%이상인 자료,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총 36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중 5학년은

131명(여학생 69명, 52.7%), 6학년은 230명(여학생 109명, 47.4%)이었고 평균연령은 각각 11.73세(SD=.605), 12.84세(SD=.460)였다. 그리고 전체 361명의 평균연령은 12.44세(SD=.743)였다.

2. 측정도구

1) 또래괴롭힘 피해 척도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5)가 개발한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임지영(1997)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적 괴롭힘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에게 화가 나서 다른 아이들이 나와 놀지 못하도록 따돌린다), 명백한 괴롭힘(예, 나를 때린다)을 측정하는 5문항과 친사회적 행동(예,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도와준다)을 측정하는 5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진술된 친사회적 행동 요인의 경우는 역채점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점수를 의미하도록 하여 전체 또래괴롭힘 점수에 포함시켰다.

관계적 괴롭힘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명백한 괴롭힘은 의도적인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또는 친구를 사귀어야 할 때 또래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지영(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관계적 괴롭힘이 .80, 명백한 괴롭힘 요인이 .7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각각 .86, .85, .92였다.

2)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

아동의 거부에 대한 반응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아동용 거부민성 질문지(Children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우리나라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부의 의미와 상황에 맞게 수정한 박지윤과 정영숙(2008)의 한국판 CRSQ를 사용하였다. 원판과 한국판 CRSQ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1) 원판 CRSQ는 또래거부와 교사거부와 관련이 있는 상황이 각각 6개이지만 한국판 CRSQ는 또래관련 8가지, 교사관련 상황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 원판 CRSQ는 거부불안과 거부분노 민감성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형은 거부상황에서 나타나는 낙담과 같은 우울반응을 의미하는 요소,

즉 거부우울 민감성이 추가되어 있다. K-CRSQ는 아동이 각각의 12가지 거부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될 때 경험하는 불안, 분노, 우울이라는 3가지 예상정서를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화가 안 난다, 전혀 우울하지 않다)에서 6점(아주 많이 불안하다, 아주 많이 화가 난다, 아주 많이 우울하다), 해당 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되는 정도(거부예상신념)를 1점(전혀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6점(정말로 정말로 거부당할 것이다)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거부민감성은 거부상황에서 경험하는 예상정서와 거부예상 정도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즉 거부불안 민감성은 거부예상불안과 거부예상정도, 거부분노 민감성은 거부예상분노와 거부예상정도, 거부우울 민감성은 거부예상우울과 거부예상정도를 곱하여 계산하고 이 3가지 점수를 합하여 전체 거부민감성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 관련된 8가지 상황에서의 3가지 유형의 거부민감성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또래 거부불안, 또래 거부분노, 또래 거부우울 민감성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7, .83, .86이었다.

3) 의도귀인 척도

모호한 상황에서 의도귀인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경(2008)이 Crick(1996)의 가설적 상황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과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한 10개의 장면을 사용하였다. 각 장면은 상대방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내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면에 대한 상황 이야기가 문장으로 제시되고 그 사건에 대해 아동의 적대적, 의도적 귀인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제시된다. 각 상황에 대해 적대적 귀인 정도를 묻는 2개 문항(2점 척도)과 의도적인 고의성에 대해 묻는 1개 문항(4점 척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귀인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적대적 귀인 점수를 계산하였다. 적대적 귀인 잠재변수는 단일요인이므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해당 문항을 홀수문항과 짝수문항으로 분할하여 2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의 내적 합치도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9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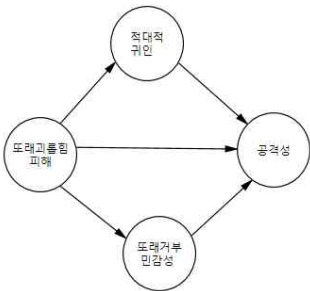
4) 공격성 척도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김은경(2008)이 아동에게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은경(1998)의 연구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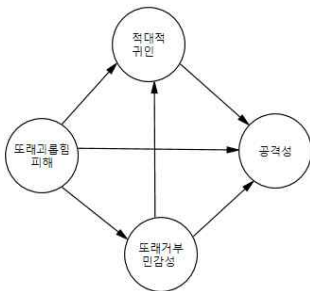
어적 공격성, 분노감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72, .81,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각각 .78, .76, .67이었다.

3. 모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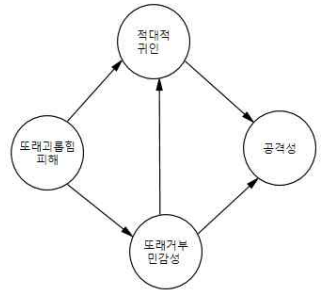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괴롭힘 피해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그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근거로 하여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 1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정보처리 단계는 상호의존적이라 초기단계의 실행은 후기 단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므로(곽금주, 1998) 부호화 단계와 관련이 있는 또래 거부민감성이 해석단계의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2와 같은 모형을 연구모형 2로 설정하였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 및 적대적 귀인과 같은 정보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개입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자 또래괴롭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 3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연구모형들이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수정모형을 제시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2



[그림 3] 연구모형 3

4. 자료의 처리와 분석

SPSS 19.0을 이용하여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들의 적합도 검증과 비교 및 평가를 위해 Amos 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잠재변수가 두 개 이상의 측정변수를 포함할 경우 측정오차를 제거한 상태에서 잠재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χ^2 적합도 지수는 표집크기에 매우 민감하고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의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해석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오류를 측정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CFI*와 *TLI*는 값이 클수록 좋은 모형이고 대략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Sobel의 공식과 다변량 델타 방법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수들의 상관과 기술통계값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변수 간 상관이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래괴롭힘 피해 측정변수 중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와 공격성 측정변수들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거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 분포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왜도가 절대값 3.0보다 크거나 첨도가 절대값 8.0보다 크면 문제가 있는 변수로 간주한다(Kline, 2010).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측정변수들의 왜도가 3.0, 첨도가 6.0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측정변수의 상관 및 기술통계

측정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관계적 괴롭힘	-										
② 명백한 괴롭힘	.53**	-									
③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22**	.31**	-								
④ 또래 거부불안 민감성	.52**	.43**	.29**	-							
⑤ 또래 거부분노 민감성	.47**	.40**	.28**	.89**	-						
⑥ 또래 거부우울 민감성	.47**	.35**	.25**	.90**	.89**	-					
⑦ 적대적 귀인1	.29**	.29**	.18**	.34**	.34**	.30**	-				
⑧ 적대적 귀인2	.41**	.29**	.20**	.44**	.47**	.41**	.58**	-			
⑨ 신체적 공격성	.23**	.22**	-.01	.24**	.29**	.22**	.17**	.21**	-		
⑩ 언어적 공격성	.18**	.14**	-.11*	.14**	.19**	.12*	.14**	.21**	.62**	-	
⑪ 분노감	.28**	.24**	.03	.34**	.37**	.31**	.18**	.32**	.64**	.50**	-
평균	6.15	6.60	12.82	5.73	5.18	4.65	11.21	12.82	19.14	11.06	16
표준편차	3.10	2.91	5.85	3.92	3.38	3.31	2.03	3.10	6.08	4.10	4.83
왜도	1.68	2.05	.50	1.74	1.86	1.87	1.82	.72	.67	.46	.81
첨도	2.85	4.87	-.64	4.18	5.09	4.78	2.74	-.63	.44	.02	.43

* $p < .05$, ** $p < .01$.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후 측정모형이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2단계 접근법이 타당하다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우선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LF=.950$; $CFI=.971$; $RMSEA=.068(90\% CI=.052-.084)$). 또한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 < .001$), 또래괴롭힘 피해 측정변수인 친사회적 행동 부재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5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50미만이면 제거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또래 괴롭힘 피해 측정변수인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이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공격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100.933	38	.000	.950	.971	.068(.052-.084)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 오차	t값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적 괴롭힘	1.00	.772		
	명백한 괴롭힘	.825	.679	.081	10.1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886	.364	.149	5.96***
또래 거부민감성	또래 거부불안 민감성	1.000	.957		
	또래 거부분노 민감성	.841	.934	.023	36.53***
	또래 거부우울 민감성	.834	.945	.022	38.33***
적대적 귀인	적대적 귀인1	.501	.666	.056	8.92***
	적대적 귀인2	1.000	.870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1.000	.858		
	언어적 공격성	.540	.697	.044	12.36***
	분노감	.695	.750	.053	12.99***

*** $p < .001$.

이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 부재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및 공격성과의 상관패턴을 고려해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또래괴롭힘 피해 척도의 다른 측정변수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며 또래 괴롭힘 피해라는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부재의 측정변수를 제거하여 또래괴롭힘 피해를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외한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으로 측정변수를 구성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다시 검증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외한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외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다시 살펴본 결과,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TLI=.963$; $CFI=.980$; $RMSEA=.063(90\% CI=.045-.082)$), 모든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거부 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잠재변인들이 각각의 측정변수들로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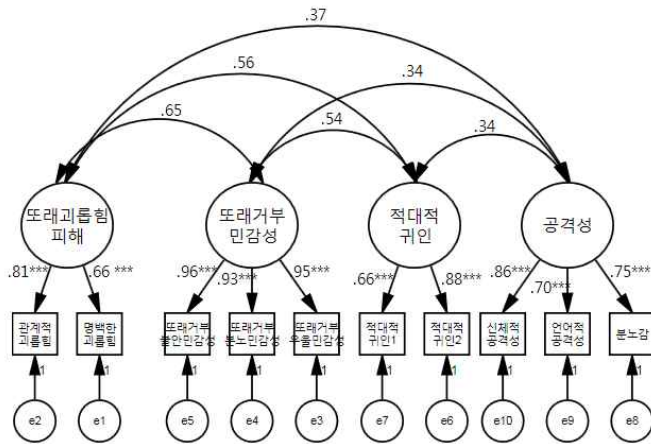
<표 4> 친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외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71.036	29	.000	.963	.980	.063(.045-.082)

<표 5> 친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외한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 오차	t값
도래괴롭힘 피해	관계적 괴롭힘	1.00	.81		
	명백한 괴롭힘	.760	.656	.079	9.57***
도래 거부민감성	도래 거부불안 민감성	1.000	.957		
	도래 거부분노 민감성	.841	.934	.023	36.46***
	도래 거부우울 민감성	.834	.945	.022	38.34***
적대적 귀인	적대적 귀인1	.494	.662	.056	8.82***
	적대적 귀인2	1.000	.875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1.000	.857		
	언어적 공격성	.541	.697	.044	12.39***
	분노감	.696	.750	.053	13.01***

*** $p < .001$.



[그림 4] 최종 측정모형. (*** $p < .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3.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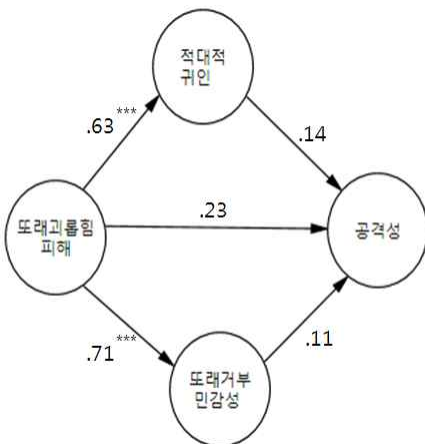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연구모형들을 검증하였는데, 연구모형 1, 2, 3의 χ^2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χ^2 값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타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 1의 적합도($TLI=.955$, $CFI=.976$,

RMSEA=.069), 연구모형 2의 적합도(TLI=.963, CFI=.980, RMSEA=.063), 연구모형 3의 적합도(TLI=.962; CFI=.979; RMSEA=.064) 모두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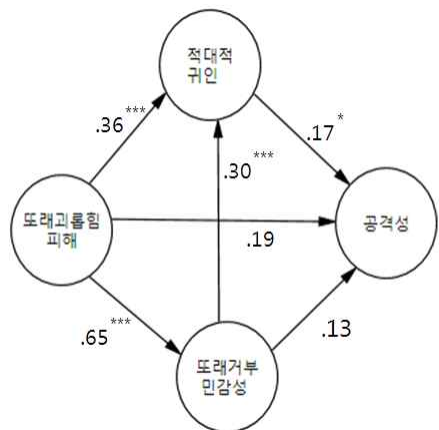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1	82.166	30	.000	.955	.976	.069(.052~.088)
연구모형 2	71.036	29	.000	.963	.980	.063(.045~.082)
연구모형 3	74.548	30	.000	.962	.979	.064(.046~.083)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를 비교해 보면, 연구모형 2는 연구모형 1에 또래 거부민감성에서 적대적 귀인으로 가는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따라서 두 모형은 내포된(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수 있다.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이지만 χ^2 값 차이는 11.1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χ^2 의 임계값인 3.84보다 크다. 따라서 χ^2 값이 더 작은 연구모형 2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경로를 더 추가하더라도 χ^2 값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는 연구모형 2가 연구모형 1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구모형 2의 경로계수를 살펴 본 결과, 또래괴롭힘 피해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p 값이 .066, 또래 거부민감성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p 값이 .134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1 역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 2가 연구모형 1보다 우수하였지만 연구모형 2의 경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5] 연구모형 1: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부분 매개 모형
(*** $p < .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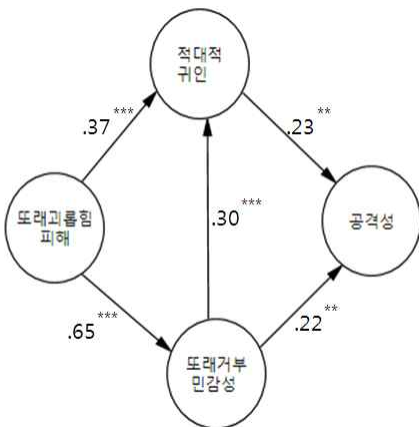


[그림 6] 연구모형 2: 연구모형 1에 또래 거부민감성에서 적대적 귀인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추가한 부분 매개모형
(* $p < .05$, *** $p < .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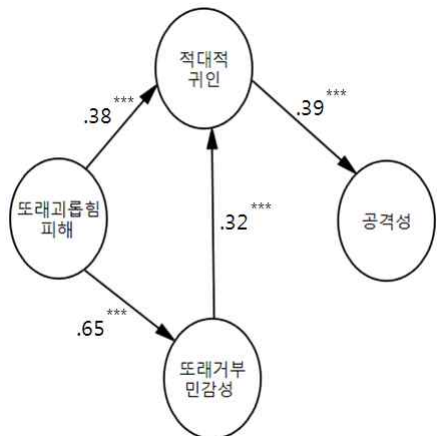
연구모형 3은 연구모형 2에 또래괴롭힘 피해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제거된 완전 매개 모형이다. 따라서 연구모형 2, 3은 내포된(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이지만 χ^2 값 차이는 3.512으로, 유의수준 .05에서 χ^2 의 임계값인 3.84보다 작다. 따라서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더 간단한 모형인 연구모형 3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연구모형 2는 χ^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감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모형 3이 연구모형 2보다 우수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모형 3의 경로계수를 살펴 본 결과, 모든 경로의 p 값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 3이 연구모형 1, 2에 비해 더 우수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연구모형 2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 즉 또래괴롭힘 피해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또래 거부민감성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외한 연구모형 2의 수정 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모형 3과 비교 검증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TLI=.956$, $CFI=.975$, $RMSEA=.069$)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모형 3과 수정모형의 χ^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이지만 χ^2 값 차이는 9.049으로, 유의수준 .05에서 χ^2 의 임계값인 3.84보다 크다. 따라서 χ^2 값이 더 작은 연구모형 3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경로를 더 추가하더라도 χ^2 값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는 연구모형 3이 수정모형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연구모형3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3	74.548	30	.000	.962	.979	.064(.046~.083)
수정모형	83.597	31	.000	.956	.975	.069(.051~.087)



[그림 7] 연구모형 3: 연구모형 2에 또래괴롭힘 피해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거한 완전 매개모형



[그림 8] 수정모형: 연구모형 2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모형

(*** $p < .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 .01$, *** $p < .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 계수 및 다른 모형들과의 비교 검증 결과 연구모형 3이 공격성을 설명하는 가장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내생변수의 분산이 선행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치(SMC) 값을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가 또래거부 민감성을 약 42.7%, 또래 괴롭힘 피해와 또래거부 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을 약 36.9%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거부 민감성, 적대적 귀인은 아동의 공격성을 약 16%정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3의 경로 계수 및 효과크기를 각각 표 8, 표 9에 제시하였고 관계모형은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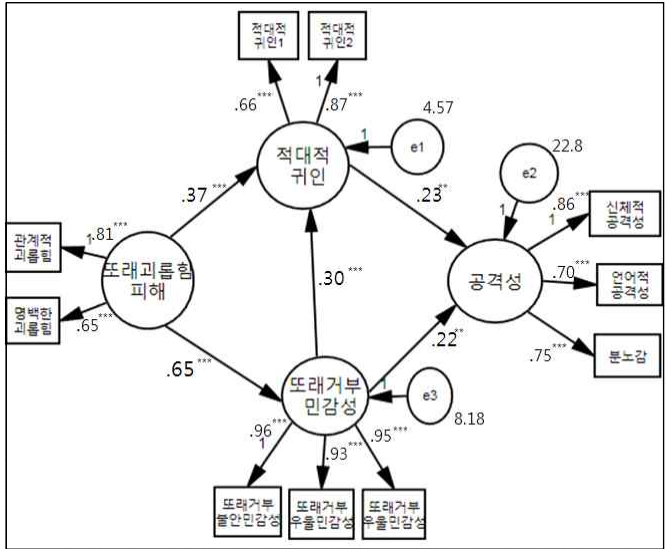
<표 8> 연구모형 3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 오차(SE)	C.R(t)
또래 거부민감성←또래괴롭힘 피해	.978	.653	.108	9.043***
적대적 귀인←또래괴롭힘 피해	.394	.369	.103	3.825***
적대적 귀인←또래 거부민감성	.212	.298	.058	3.639***
공격성←또래 거부민감성	.302	.219	.098	3.095**
공격성←적대적 귀인	.451	.233	.154	2.937**

** $p < .01$, *** $p < .001$.

<표 9> 연구모형 3(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SMC
또래 거부민감성←또래괴롭힘 피해	.653	-	.653	.427
적대적 귀인←또래괴롭힘 피해	.369	.195	.564	.369
적대적 귀인←또래 거부민감성	.298	-	.298	
공격성←또래 거부민감성	.219	.070	.289	
공격성←적대적 귀인	.233	-	.233	.158
공격성←또래괴롭힘 피해	-	.275	.275	



[그림 9] 도래괴롭힘 피해, 도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및 공격성의 관계 모형
 (** $p < .01$, *** $p < .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4. 매개효과 검증

도래괴롭힘 피해가 도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에 각각 영향을 주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 매개변수의 간접 효과와 도래괴롭힘 피해가 도래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단순매개 효과는 Sobel(1982)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Sobel 검증은 간접효과를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로 나누어 검증통계량인 Z값을 구하는 것으로, $ab/\sqrt{b^2S_a^2 + a^2S_b^2}$ 공식을 이용한다. 이 때 a 와 b 는 경로 a , b 의 비표준화 계수, S_a 는 a 의 표준오차, S_b 는 b 의 표준오차이다.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도래괴롭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도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Z=2.92, p<.01$)와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Z=2.3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매개 효과는 다변량 델타 방법인 $abc/\sqrt{a^2b^2S_c^2 + a^2c^2S_b^2 + b^2c^2S_a^2}$ 공식을 이용하여 Z값을 구하는데, 이중매개 효과 또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도래괴롭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도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2.22, p<.05$).

<표 10> 매개효과 검증

경로	계수	SE	Z
또래 괴롭힘 피해 → 또래 거부민감성 → 공격성	.30	.10	2.92**
또래 괴롭힘 피해 → 적대적 귀인 → 공격성	.18	.08	2.33*
또래 괴롭힘 피해 → 또래 거부민감성 → 적대적 귀인 → 공격성	.09	.04	2.22*

* $p < .05$, ** $p < .01$.

IV.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측정변수들의 상관분석 및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여러 모형들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은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고,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고, 적대적 귀인을 많이 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의 결과는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높은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Vossekuli, Reddy, Fein, Borum, & Modzeleski, 2000)결과와 일치하며, 또래 거부민감성과 공격성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의 결과는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또래에 대한 공격성을 예언해 준다는 연구(Downey et al., 1998)결과와 일치한다. 적대적 귀인과 공격성과의 정적 상관 결과는 상대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귀인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Berkowitz, 1974; Dodge et al., 1984) 적대적 귀인이 공격적 반응을 예견한다는 연구(Dodge, Batea, & Pettit, 1990)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매개작용을 하고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주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 3이 가장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이 제공하는 다양한 단서를 어떻게 지각하며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친사회적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기초하여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정

보처리 모델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매개작용을 하고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주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 3이 최종 모형으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먼저,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또래 거부민감성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거부가 거부민감성의 불안과 분노 거부기대를 증가시키고(Dowey et al., 1998),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위협을 찾아내는 역치가 더 낮으며(Olsson et al., 2008) 거부관련 단서에 대해 더 경계하고 회피하며(Berenson et al., 2009), 부호화에서의 결핍과 편향이 아동을 공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한 연구(Pettit et al., 2001: 김영은, 2012에서 재인용)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계속되는 거부의 경험으로 인해 아동은 다른 사람들의 거부에 민감한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러한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거부나 적대적 단서에 집중하는 부호화 단계의 오류를 보이게 되어 공격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적대적 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오랫동안 공격을 당한 남아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쉽게 화내거나 보복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연구(Schwartz et al., 1998), 여자아동의 피해 경험과 가해 행동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판단하고 복수하려는 의도를 지니는 것과 관련된 적대적 인지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이지현, 2006)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을 유발하는,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이 또래괴롭힘을 당하면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적대적 귀인을 하게 되어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보처리 단계는 상호의존적이라 초기단계의 실행은 후기 단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곽금주, 1998)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사회적 단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부호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해석단계의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적대적 의도로 귀인하여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 연구(Dodge & Somberg, 1987)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뿐 아니라,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을 유발하는 이중매개 효과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은 또래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거부나 적대적 단서에 주의 집중하는 부호화 문제 뿐 아니라 해석 단계에서 적대적 귀인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공격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 자체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이 높은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3; Vossekuli et al., 2000)와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피해 학생들의 공격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살펴본 연구로,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한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이익섭과 최정아(2008)의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는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공격성 발달궤적은 유의한 개인차를 나타낸다는 연구(고광만, 2012),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변인(인격특질, 신념, 인지 등)이 스트레스를 지각하여 대처행동을 한다고 한 연구(Lazarus & Folkman, 1984)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스트레스이고 귀인이나 거부민감성이 개인의 인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인지가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귀인이나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또래괴롭힘 피해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또래 거부민감성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또래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귀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정해주는 상담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 자체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 성향이 높지 않으면 공격성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에 개입을 하면 또래괴롭힘 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Beck(1976)은 적대적 귀인은 일종의 비합리적 사고이며 그러한 사고과정에 개입하여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습관을 바꿔주는 것은 인지적인 과정이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다고 하였다(김은경, 이정숙, 2009). 또한 Hudley와 Graham(1993)은 공격적인 아동들은 타인의 애매모호한 행동에 대해서 덜 적대적인 귀인을 하도록 훈련시키면 공격성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문진명(2000)은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 관계는 사회적 정보처리 기술인 귀인이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접근이 또래 간 문제 행동을 줄이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으로 인해 공격성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대적 귀인을 인식하고 이를 교정

해 줄 수 있는 생활지도나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또래 거부민감성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부민감성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거부민감성 수준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낮추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과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 문제에 개입을 한다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이 공격성을 띄게 되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또래괴롭힘 피해 자체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않지만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활성화시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동이 또래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또래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소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여 아동이 부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집단상담 활동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에서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확인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모두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함으로써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으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개입 전략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단순 매개효과,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인지, 정서적 개입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피해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과 같은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오류나 편파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을 아동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공격성을 띤 아동의 정보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공격성을 유발하는 정보처리 과정을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따라서 정보처리 모델이 아동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델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로 인해 또래 거부민감성이 발달하고, 이것이 적대적 귀인으로 이어져서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거부민감성의 통합적 모델 (Levy, et al., 2001; Romero-Canyas et al., 2010)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 모델은 거부경험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발달하고 이것이 의도귀인의 문제를 유발하여 공격성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의 통합적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거부민감성 모델에 대한 실제적 설명력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민감성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였던 거부민감성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거부민감성 연구의 폭을 넓히며 거부민감성과 다른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다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대한 이해력의 문제로 저학년은 제외하였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괴롭힘 피해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조유진, 2006), 가해자들이 보통 자신들보다 더 어리고 약한 아동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동이 어리면 어릴수록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이경화, 2002).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의 조기 개입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교사나 또래가 평가한 지속적인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이 아닌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또래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하는 아동들이 본 연구에서 확인한 기제를 통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지현(2006)은 여자아동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은 그 자체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우울인지와 적대적 인지의 자동적 사고와 관련된 때 가해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남자아동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은 그 자체로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기보고 자료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어적 태도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타인의 보고 및 아동과의 심층면접

등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정보 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의 인과관계를 횡단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횡단적 자료로는 변인들 간의 보다 확실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다룬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변량은 16%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변인들 외에 공격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찾아 이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령, 유형근 (2000).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 곽금주 (1992). 공격영화 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곽금주 (1998). 사회인지발달적 관점에서 공격성의 평가와 중재에 대한 탐색. **심리과학**, 7(2), 1-18.
- 고광만 (2012).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의 공격성 발달 궤적 연구. **생애학회지**, 2(2), 67-80.
- 김귀연,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명숙 (1989). 아동의 공격행동 결과예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은 (2012).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특징.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김예성, 김광혁 (2005).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괴롭힘 경험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학교유대감, 공격성의 차이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경험 변화. **아동학회지**, 29(4), 213-229.
-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은경 (2011). 폭력적인 양육환경이 정보처리과정을 매개로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5(2), 161-181.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김태웅 (2003). 집단 따돌림 가해와 피해의 관계: 동조성과 정서적 반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진명 (2000).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또래 피해 지각에 따른 또래 따돌림 귀인 및 소외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경아 (2002).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지윤,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서현아, 지은주 (2000). 사회정보처리모델을 중심으로 한 공격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21(2), 137-155.
- 윤리라 (1999).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윤완기 (1994).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경화 (2002). 아동의 도래 괴롭힘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도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아영(2011). 초등학생 공격성의 영향요인: 부부간 폭력과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익섭, 최정아 (2008).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학교부적응 간의 경로 분석. *청소년시설행경*, 6(1), 47-58.
- 이지현 (2006).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춘재, 곽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실태와 특성. *아산재단연구총서 제 61집*.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임지영 (1997). 도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조유진 (2006).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옥임 (2001). 도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지윤 (2009). 청소년의 도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 양식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준아 (2001).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 공격적 아동과 친사회적 아동의 차이.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허은순 (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onson, E. (1980). *Social animal*. New York: W. H. Freeman Company.
- Barchia, K., & Bussey, K. (201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eer victimization: Exploring social-cognitive mediators of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ce*, Vol. 33 No. 5, pp. 615-623.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emotional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renson, K. R., Gyurak, A., Ayduk, O., Downey, G., Garner, M. J., Mogg, K., Bradley, B. P., & Pine, D. S.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ruption of attention by social threat cu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1064-1072.
- Berkowitz,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Willy.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oie, J. D., & Dodge, K. A. (1998).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Coie, J. D., &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ie, J., Terry, R., Lenox, K., & Lochman, J. (1995). Childhood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table patterns of adolescen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697-713.
- Crapanzano, A. M., Frick, P. J., Childs, K., & Terranova, A. M. (2011).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essment, stability, and correlates to bullying roles in middle school children.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Vol. 29 No. 5, pp. 677-694.
- Crick, N. R. (1996).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 Crick, N. R., & Grotpeter, J.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5, 147-163.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 (Org.),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Cognitive Perspectives in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18, 77-125.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33, 620-635.
- Dodge, K. A., Murphy, R. M., & Buchsbaum, K. (1984). The assessment of intention-cue detection skills in children: Implications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163-173.
-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 Valente, E. (1995).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early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632-643.
- Dodge, A., Price, M., Barchorowski, J., & Newman, J. P. (1990).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in severely aggressiv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4), 385-392.
- Dodge, K., & Somberg, D.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 to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 45-61.
- Downey, G., Freitas, A.,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45-560.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 1074-1091.
- Erdly, C., & Asher, S. (1996). Children's social goals and self-efficacy perceptions as influences on their responses to ambiguous provocation. *Child Development*, 67, 1329-1344.

- Feshbach, R. D.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FL: Jhn Wiley and Sons Co.
- Guerra, N. G., & Slaby, R. G. (1990).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2. Inven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69-277.
- Graham, S., & Hudley, G. (1994). Attributions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African-American male early adolescencets: A study of construct accessi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65-373.
- Hartup, W. W. (1974). *The cycle of violence: Assertive, aggressive, and abusive family interaction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series Ed.) and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New York: wiley.
- Hawker, D. S. J.,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 analytic review of cross sectional studie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4), 441-455.
- Hudley, C., &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s. *Child Development, 64*, 124-138.
- Hunter, S. C., & Boylr, J. M. (2002). Perceptions of control in the victims of school bullying: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Educaional Research, 44*(3), 323-336.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2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ösel, F., & Bender, D. (2011). Emotional and antisocial outcome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at school: A follow-up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Vol. 3 No 2*, pp. 89-96.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 481-506.
- Ma, X. (2001). Bullying and bullied: To what extent are bullies also victim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2), 351-370.
- Marcus-Newhall, A., et al. (2000). Displaced aggression is alive and well: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lai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670-689.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2003).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2*.
- Olsson, A., Carmona, S., Downey, G., Bolger, N., & Ochsner, K. N. (2008). *Perceptual and learning biases underly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social reject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New York: John Wiley.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s.
- Pederson, W. C., Gonzales, C., & Miller, N. (2000). *The moderating effect of trivial triggering provocation Report of the European Teachers Seminar on Bullying in Schools*. Strasbourg: CCC.
- Quiggle, N., & Garber, J., Panak, W.,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1305-1320.
-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 119-148.
- Rueger, S., Malecki, C., & Demaray, M. (2011). Stability of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Effects of timing and dur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49 No 4*, pp. 443-464.
- Schwartz, D., Mcfadyen-Ketchen, S.,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t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87-99.
- Slaby, R. G., & Guer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I.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Vossekkuli, B., Reddy, M., Fein, R., Borum, R., & Modzeleski, W. (2000). U. S. *Secret Service Safe School Initiative: An interim report on the prevention of targeted violence in schools*. Washington DC: U. S. Secret Service, National Threat Assessment Center and U. S. Department of Education,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논문접수 2013년 1월 31일 / 1차 심사 2013년 2월 28일 / 2차 심사 2013년 5월 21일 / 게재승인 2013년 6월 10일

* 홍상황: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심리검사_의 이론과 실제'(공저) 등이 있다.

* E-mai: shhong@cue.ac.kr

* 이경연: 진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초등학교 상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진주초전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xchristy@hanmail.net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Hong, Sang-Hwang**

Lee, Kyeong-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For this research, correlations among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s aggression were examined, several models were established to be verified for explaining aggression. The Peer Victimization Scale, the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K-CRSQ), the Intent Attribution Scale, and the Aggression Scale were administered to 361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As a result, peer victimization, peer rejection sensitivity, hostility attribu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gression. Additionally, several models were produced and performed of comparing te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when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attribution were established as mediating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were mediated to lead to aggression. At the same time, a mediation model was revealed to be most appropriate in which the peer rejection sensitivity was assumed to directly affect hostility attribution to lead to ag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peer victimization does not lead to aggression, but the interpretation of events such as hostility attribution and cognitive, psychologig variable such as their personal peer rejection sensitivity have greater effect on aggression.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and psychotherapy practice.

Key words: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peer rejection sensitivity, hostility attribution

* This study was announced at the Korean Elementary Counselor Education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 First author,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